

1년 연기와 사상 초유의 무관중까지, 말 많고 탈 많던 2020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한 지구촌의 성대한 축제로 삼으려고 한 이번 올림픽은 대회 자체만을 놓고 보면 성공적이진 않았다. 그래도 태극전사들의 열정과 도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웠다. 오랜 땀과 노력의 결실에 국민 모두가 아낌없는 찬사와 갈채를 보냈다. 물론 감동만 가득하진 않았다. 메달이나 결과와 관계없이 활짝 웃은 이들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도쿄올림픽을 3회에 걸쳐 정리한다.

엘리트체육, 어중간해선 안된다

런던올림픽때보다 메달수 10개 미만
세대교체 실패…종목별 간판스타 부재
비인기 종목 유소년선수 축소 경쟁력 ↓
정부·기업, 지속적 후원과 투자 필요

도쿄올림픽은 한국체육의 현실을 깨닫게 한 계기였다. 금메달 7개-종합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했던 우리 선수단은 금 6개, 은 4개, 동 10개로 16위를 기록했다. 5년 전 리우데자네이루대회(금9·은3·동9)와 전체 메달수는 비슷했으나 금메달만 놓고 보면 1984년 LA대회(금6·은6·동7)로 퇴보했다. 2012년 런던에서 무려 30개의 메달(금13·은9·동8)을 휩쓸었던 한국 엘리트스포츠이기에 몹

시 충격적 결과다.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세대교체 실패가 있다. 하계올림픽만 놓고 보면 박태환(수영), 장미란(역도) 등 핵심 종목의 간판스타들이 떠난 뒤 한동안 뉴 페이스가 나오지 않았다. 여자배구를 제외하면 축구, 야구, 핸드볼 등 대부분의 구기종목은 국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고 힘겨루기가 핵심인 레슬링, 복싱 등 투기종목은 경쟁조차 되지 않는다. 베테랑의 관록과 경험에 의존하다보니 한계가 뚜렷했다.

유감스럽게도 절대 다수의 종목들이 저변 확대에 애를 먹고 있다. 1가구 1자녀가 대부분인 한국사회에서 프로무대조차 없는 ‘츄고 배고픈’ 종목을 택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부모는 없다. 유소년선수가 줄면 인프라도 축소되고, 결국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해답은 간단하다.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체육정책은 엘리트대신 생활체육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부하는 운동선수’라는 정책의 방향성은 맞지만, ‘공부와 운동 모두 어중간한 선수’만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할 때다. 올림픽 등 국제대회가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위선양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유럽, 북미 등의 체육 선진국들 중 어디도 생활체육을 위해 엘리트체육을 터부시한 사례는 없다. 아울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후원금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체육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필수다. 올림픽대표 선발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은 종목이 많았다. 전·현 집행부가 대립하고 법정다툼을 벌이는 불행사나운 모습 또한 종종 볼 수 있었다.

대한체육회부터 중심을 잡아야 한다. 안일하고 안주하던 산하 종목단체들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의지로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 “강세 종목뿐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통일된 안을 만들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올림픽

스포츠동아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3



'도쿄 빛낸 11명'에 이름 올린 안산 2024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8일(한국시간) 도쿄를 빛낸 올림픽인 11명의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한국양궁의 자존심을 세운 3관왕 안산은 포스터 가장 왼쪽에 활을 든 모습으로 포함됐다. 이번 대회 최다 5관왕에 오른 수영 황제 게일럼 드레슬이 '센티'를 차지한 가운데 안산도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이다. 사진출처 |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SNS

14일간의 올림픽 취재를 마치며

격리·실감·사고 그리고 환희

출국을 앞두고 각종 서류를 작성하며 일본 입국 자체를 걱정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귀국일입니다. 체감하기로는 도쿄에서 보낸 3주가 마치 사흘 같습니다.

2020도쿄올림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파 속에 전례 없는 무관중 대회로 펼쳐졌습니다.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시즈오카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관중을 받지 못했죠. 게다가 도쿄에는 올림픽 기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가 발령됐습니다. 당연히 입국자들에 대한 조치는 무척 엄격했습니다.

외국 취재진에게도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했습니다. 입국 후 14일간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상세히 기술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입국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 서류가 승인이 나지 않아 취재진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어 입국 이틀날부터 3일째까지는 숙소에서 꼼짝없이 격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격리가 풀리고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에야 현장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찾은 여자양궁 단체전 현장에서 강채영-장민희-안산 선수가 금빛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을 보니 올림픽을 취재하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안산 선수에게 “이름의 한자가 뽀 산(山)이야”고 묻고 답변을 받았는데, 곧바로 강채영 선수가 제게 “혹시 진주 강 씨인가요”고 되물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첫 해외 올림픽 취재인 데다 코로나19의 특수성까지 겹쳐 두려움도 있었지만, 1주차를 잘 넘기니 그 뒤로는 동선을 짜는 일도 한결 수월했습니다. 주최측에서 너무 겁을 준 감도 없잖아 있네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입국 후 14일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숙소 앞에서 미디어 셔틀버스(TM)를 타고 무조건 터미널(MTM)로 이동한 뒤에야 현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30~40분 거리를 2시간 가까이 허비했습니다. 방역택시(TCT)는 예약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서울로 치면, 광화문에서 영등포 또는 송파구로 이동하는데 무조건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거쳐야 하는 식이었습니다.

사고도 있었습니다. 귀국을 이틀 앞두고 한국야구가 미니카공화국과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한 장면을 보고 돌아왔더니 지갑이 사라진 겁니다. 다행히 현금을 분리해 들고 다녔던 터라 피해는 최소화했지만, 카드 재발급 절차 등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예졌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제가 갔던 장소들에 모두 전화를 돌려보니 요코하마스타디움 인근 파출소에 분실된 지갑이 들어왔더군요.

관중이 들어오지 않는 경기장과 대회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이는 도쿄시민들을 보면 올림픽의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했지만, 엄청난 추억이 됐습니다. 김연경 선수를 앞세운 여자배구대표팀의 일본전과 타키전 승리 현장은 그야말로 환희의 장이었고, 미국-스페인 남자농구 8강전 취재도 색다른 기억으로 남을 듯합니다. 비록 와글와글하진 않았지만, 올림픽의 매력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국 직전 코로나19 검사 결과도 음성입니다. 3년 뒤 파리에선 코로나19가 종식돼 관중들로 가득 찬 경기장을 보고 싶습니다. cut바이 도쿄!

도쿄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올림픽선수단 해단식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앞줄 검정색)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선수단이 9일 도쿄 올림픽선수촌 숙소동 앞 광장에서 해단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은 금 6개, 은 4개, 동 10개 등 총 20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16위에 올랐다. 사진제공 | 대한체육회

바일스 경기포기 충격…‘첫 성전환’ 허버드의 도전…치마노우스카야 망명 화두

〈미국 체조〉

〈뉴질랜드 역도〉

〈벨라루스 육상〉

BBC가 돌아본 도쿄올림픽 이슈 3가지

2020도쿄올림픽이 8일 막을 내렸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도쿄올림픽 전반을 조명하면서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짚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지침과 한 여름 도쿄의 폭염과 높은 습도로 참가 선수들이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우리 속에서도 대회는 정상적으로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몇몇 선수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번 대회가 전 세계에 던진 이슈를 정리했다.

●**선수들의 정신건강 돌아보게 한 시몬 바일스**
세계적 체조 스타인 미국의 시몬 바일스(24)는 도쿄올림픽 도중 정신적 어려움을



바일스

허버드

치마노우스카야

호소한 끝에 출전이 예정된 경기들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바일스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도쿄올림픽에서도 다관왕이 유력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한 그는 개인종합과 종목별 결선 참가를 포기했다. 마지막 경기였던 평균대에 어렵게 복귀해 동메달을 획득하는 것으로 대회를 마감했다. 바일스

를 계기로 선수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다시 큰 이슈가 됐다.

●**첫 성전환 올림픽피언 로렐 허버드**

역도 여자 87kg급에 출전한 뉴질랜드의 로렐 허버드(43)는 성전환자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 선 주인공이다. 많은 응원을 받았지만 같은 종목의 선수, 과학자 등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논란 속에 올림픽에 출전한 허버드는 용상에서 3번 모두 바벨을 들어올리지 못해 실격됐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표정으로 무대에서 내려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15년부터 성전환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 성전환 여성선수는 남성호르몬 테스트스테론 수치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출전이 가능하다.

허버드의 올림픽 출전으로 또 하나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치마노우스카야 망명으로 본 정치와 스포츠**

벨라루스 육상선수 크리스치나 치마노우스카야(24)는 경기 외적으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선수다. 치마노우스카야는 자국 육상팀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강제귀국 명령을 받았다. 이런 처사가 부당하고 느낀 그는 나리타공항에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그는 결국 폴란드로 망명을 선택했다. IOC는 자체 조사 끝에 벨라루스 육상팀 코치 2명의 퇴출을 결정했다. 치마노우스카야의 망명으로 벨라루스의 정치적 상황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스포츠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3관왕 안산 포상금만 5억 4강 기적 여자배구팀 6억

‘아시아新’ 수영 황선우는 1000만원

2020도쿄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양궁의 저력을 입증한 태극궁사들이 역대 포상금을 받는다. 양궁계는 9일 “대한양궁협회와 회장사인 현대자동차가 두둑한 포상금을 마련하고 있

다”며 “전 종목(5개) 석권은 불발했으나 세계 최강의 위상을 지닌 선수단을 최대한 대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체 규모는 5년 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코치진과 선수들에게 25억 원이 주어졌다. 개인전 우승 2억 원, 단체전 우승 1억 5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여자개인전과 단체전, 혼성단체전까지 한국선수 최초의 하계올림픽 3관왕을 달성한 안산(광주여대)은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안산과 짝을 이룬 혼성단체전과 남자단체전을 석권한 김제덕(경북고)은 3억 원, 남녀 단체전에서 금빛 과녁을 뚫은 오진혁(현대제철)-김우진(청주시청)-강채영(현대모비스)-장민희(인천대)는 1억 5000만 원씩을 받는다.

그러나 반드시 메달을 따야만 포상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2년 런던대회에 이어 4강 기적을 재현한 여자배구대표팀에도 포상금 6억 원이 지급된다. 9일 대

한배구협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공식 후원협약을 맺고 남녀배구대표팀의 국제대회를 지원한 신한금융그룹이 전달할 격려금 2억 원과 V리그를 주관하는 한국배구연맹(KOVO)의 2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의 포상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대한수영연맹도 남자 자유형 100m 준결선에서 47초56의 아시아기록 및 세계주니어기록을 동시에 수립한 ‘뉴마린보이’ 황선우(서울체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남정현 기자